

저자 (Authors)	주보돈
출처 (Source)	계명사학 21 , 2010.11, 35-56(22 pages)
발행처 (Publisher)	계명사학회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00445
APA Style	주보돈 (2010). 한국 고대사회 속 여성의 지위. 계명사학, 21, 35-5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 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7 17:1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국 고대사회 속 여성의 지위

주 보 돈*

목 차

- | | |
|------------------------|------------------------------|
| I. 들어가면서 | IV. 신라 여성의 지위 |
| II. 한국사에서 여성의 지위와 그 변화 | V. 선덕여왕(善德女王)의 즉위와 여성의 지위 문제 |
| III. 백제 여성의 지위 | |

I. 들어가면서

근대사회로 진입한 이후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는 급속히 향상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남성과 거의 대등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하여도 지나치지가 않을 듯하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아직 남녀 간의 차별적 요소들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머지않아 척결될 잔재일 따름이다. 최근 종종(宗中)의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여성도 남성과 함께 동등한 권한과 권리를 가진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현시점에서 여성의 지위가 어떠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실이다. 어쩌면 흔히 운위되어 왔듯이 역사의 발전이란 곧 자유와 평등의 확장과 확대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성의 지위 변화도 그에 어울리는 하나의 뚜렷한 실례라 손꼽을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자칫 우리의 뇌리 속에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단편적인 지식을 토대로 오인된 사실이 마치 역사적인 실체인 듯한 깊이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bdju@knu.ac.kr

각인된 듯한 느낌도 든다. 그 가운데 가장 저명한 사례로서는 조선후기의 역사적 특수성에서 배태된 여성관이 마치 그 이전 전 시대를 관통하여 통용되기라도 한 듯이 지나치게 오인한다거나 신라시대에 여왕이 존재하였다고 하여 당시 여성의 정치적 지위까지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이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커다란 오해의 결과일 따름이다.

여기에서는 지면의 형편상 단순히 한국고대사회 여성의 지위에 대해 오해를 받아 온 부분을 대상으로 단편적인 사료를 매개로 삼아 간단히 몇몇 새로운 문제제기를 해 보려고 한다. 장차 이 방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에서이다.

II. 한국사에서 여성의 지위와 그 변화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선후기에 이르러서의 일로 지적되고 있다. 흔히 전통시대에는 언제나 여성이 남성에게 견주어 모든 면에서 크게 차별 받아왔던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조선후기의 일정 시점부터 행해진 실상에 비추어서 유추해 낸 근거 없는 선입견에 불과하다. 그 바로 직전인 조선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여성도 재산상속권(財産相續權), 제사권(祭祀權), 족보(族譜) 기록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남성과는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한 대접을 받고 있었다. 재산은 남녀 간에 별다른 차별 없이 균분상속(均分相續)이 이루어졌으면 그에 따라 자연히 제사도 돌아가면서 담당하는 윤회봉사(輪廻奉祀)가 일반적이었다. 딸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그 재산을 상속받은 외손(外孫)에게까지도 친손(親孫)과 동등하게 제사 참례권이 주어졌다. 그런 배경 아래에서는 당연히 모계나 처계까지도 족보의 기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족

보는 부계 중심이 아니었다. 양자제(養子制)의 경우도 굳이 같은 혈족 집단 내부에서만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혈연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도 그 대상이 되었다. 지금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너무도 확연히 다른 모습을 띄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다가 17세기에 이르러서 당시의 정치적·사회적으로 커다란 변동을 겪으면서 사정이 일변하였다. 이른바 양란(兩亂)으로 야기된 혼동을 정리하면서 성리학적인 질서가 이제 촌락 깊숙이까지 뿌리내리게 되자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에서는 비할 바 없는 엄청난 변화가 초래된 것이었다. 부계 중심의 가부장적인 질서가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재산상속이 기존의 남녀균분상속제가 무너지고 대신 적장자단독상속(嫡長子單獨相續)이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사권도 저절로 장남에게만이 주어지면서 여성은 차츰 대상에서 배제되기 시작하였다. 족보의 기재방식도 부계의 남성 중심으로 확연히 달라졌다. 여성은 재산상속권이나 제사권의 범주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직 출가외인(出嫁外人)으로 인식되면서 사회적으로 남성과 비교하여 철저하게 차별 받고 소외당하는 존재로 전락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 변동의 근간에는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는 물론이고 당시 치열하게 전개되어 가던 당쟁도 한몫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남성과(후술하듯이 정치적 측면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동등하게 대접받았던 상황이 위로 어느 시기까지 소급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그리 확인하지가 않은 형편이다. 전반적인 흐름으로 미루어 대충 추정하면 늦어도 삼국시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 다만 삼국시대 이후 근대의 초입기(初入期)에 이르기까지 전 시대를 통관하여 사회적 통념상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데에는 일정하게 제약이 뒤따랐던 점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 계급에 토대한 국

가가 출현한 이후에는 어느 시대라도 여성의 정치적 참여는 일관되게 철저히 배제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혹여 한국사의 전개 과정에서 세 사람 여왕의 존재가 뚜렷이 확인되는 신라시대만은 각별히 여성의 정치적 활동 자체가 예외적으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매우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경향도 간혹 엿보이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조선후기와 비교할 때 신라시대에도 상당한 우대를 받았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치에의 참여까지는 허용되고 있지를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여성이 관료로 진출의 기본적 요건인 관등(官等)을 지급받는다거나 마침내 관료가 된 사례가 전혀 찾아지지 않는 데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신라 여왕의 탄생은 당연한 사회적 산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어떤 특별한 예외적 사정에서 말미암은 일이라 봄이 적절한 해석이라 여겨진다. 여기서는 그 점에 초점을 맞추어 약간의 논의를 진행시켜 보고자 한다.

Ⅲ. 백제 여성의 지위

2009년 1월 초 전북 익산(益山)에 소재한 미륵사(彌勒寺)의 서탑(西塔)으로부터 이른바 사리봉안기(舍利奉安記)가 출토되었다는 깜짝 놀랄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사리봉안기는 석탑 내부에 부처님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안치하면서 그 시말(始末)을 금동판에 간단하게 기록한 내용이다. 석탑 정중앙의 가장 밑바닥에 각종 사리장치를 두기 위해 마련한 사리공(舍利孔) 안에서 나왔던 것이다.

백제 때에 창건된 미륵사는 언제부터 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폐사지(廢寺址)로 전락한 상태였으며 오직 윗부분이 상당히 떨어져나간 6층 정도의 석탑 한 점만이 덩그러니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

가 30여 년 전 무렵 장기적인 미륵사 정비계획이 마련되면서 십수 년 간에 걸쳐 전면적인 발굴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미륵사의 전모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그 결과 창건 배경과 시점 및 과정과 구조 등등과 관련한 기본적 사항이 기존에 알려진 기록과 거의 그대로 합치한다는 사실이 뚜렷이 확인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는 원래 존재하였던 세 개의 탑 가운데 파괴된 상태로나마 유일하게 모습을 보이던 서탑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걸리는 복원 계획이 설정되면서 먼저 해체에 들어갔다. 해체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시점에서 전혀 예기치 못하게 사리봉안기가 출토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사리봉안기에는 기왕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되는 사항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어 연구자들을 일시 혼란과 흥분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다. 미륵사의 창건과 관련된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삼국유사』의 무왕조(武王條)에 처음으로 전해진다. 그곳에는 마(薯)를 팔면서 어렵사리 생계를 유지해 가던 서동(薯童)이라 불린 백제의 청년이 신라 왕도에 잠입하여 마침내 의도적으로 서동요(薯童謠 ; 향가로 작성)라는 노래를 의도적으로 지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부르게 함으로써 마침내 왕궁으로부터 쫓겨나는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善花公主)를 만나 혼인하게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뒤이어서 그가 백제의 무왕으로 즉위한 뒤 익산으로의 천도를 고려하다가 왕비가 된 선화공주의 발의로 미륵사를 창건하게 된다는 내용 등등이 실려 있다. 말하자면 미륵사 창건 연기설화(緣起說話)인 셈이다.

그러나 사리봉안기에는 미륵사의 창건이나 건탑(建塔) 시점을 639년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주도한 인물을 신라의 선화공주가 아니라 ‘왕후좌평사탁적덕지녀’(王后佐平沙千積德之女 ; 왕후인 좌평 사탁적덕의 딸)이라고 표현하여 기존의 역사서에 보

이는 기록과는 확연히 다른 내용이 보여 크게 관심을 끌었다. 미륵사의 창건 시점이나 그를 주도한 주인공이 기왕에 알려진 그것과는 뚜렷이 차이가 나므로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인가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형편상 그를 본격적인 논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겨를은 없다. 다만 잠시 눈여겨 두고 싶은 것은 왕후의 존재나 그 위상을 드러내는 특이한 기술 방식에 대해서이다.

그 점과 관련하여 사리봉안기에는 특이하게도 왕후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있는 점이 각별히 주목된다. 게다가 그나마 일반적인 양상과는 다르게 ‘어느 왕의 왕비’라고도 표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누구누구의 딸’로만 기재하여 자신의 친정 아버지 이름만을 밝히고 있는 점이다.¹⁾ 이 점은 통상적 관례에 비추면 매우 이상스러운 유별난 사례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것을 백제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본다면 오히려 그리 특별한 사례라 간주하기 어려운 측면도 엿보인다. 왜냐하면 1971년 우연히 발굴되어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을 끈 바 있는 무령왕릉(武寧王陵)에서는 왕의 지석(誌石)과 함께 왕비의 그것이 출토되었는데 거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무령왕은 523년, 그의 왕비는 바로 3년 뒤인 526년에 사망하였다. 그런 사정의 대강은 무덤을 완성하고 난 뒤 거기에 넣어둔 두 사람의 지석(誌石 ; 강조점을 달리할 경우 買地券이라고도 일컫는다)을 통하여 확인된다. 기본적으로 망자(亡者)의 삶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묘비가 무덤의 바깥 바로 앞에 세워두는

1) 이는 무왕의 왕비 가운데 어찌면 다른 귀족의 딸도 있었기에 그와 구별하기 위하여 누구 왕의 왕비라 하지 않고 굳이 누구의 딸이라고 하였다는 인상이 짙다. 이는 백제 왕비의 존재 양상을 짐작하는데 크게 참고가 되는 사항이다.

것이라면 지식은 무덤의 안에 넣는 점에서 다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왕비의 지식에서까지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오직 ‘백제국왕대비(百濟國王大妃)’라는 형태로만 표현하고 그 구체적인 이름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식과 함께 출토된 팔찌에도 단지 대부인(大夫人)이라고만 명기하였을 뿐 이름은 드러내지 않았다. 이처럼 무령왕의 왕비 지식에서까지도 실명(實名)을 거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리봉안기의 기재 방식과 비슷한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물론 백제의 여성이라고 하여 따로 사용된 이름이 없었을 리가 만무하다. 이를테면 의자왕의 여러 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정되며 백제 멸망의 근본적이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몇몇 사료상에서 지목받고 있는 은고(恩古)란 여인의 존재는 그를 여실히 보여 준다. 그럼에도 왕후(왕비)조차 지식에서까지 그 이름을 선뜻 내세우지 않는 관행이 널리 통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기록에서 은고라고 실명을 밝힌 것은 차라리 예외적인 특별한 사례에 속한다는 느낌이다. 사정이 그럴진대 여타의 귀족 관료나 일반인들이 어떠하였을지는 충분히 짐작 가능한 대목이다. 백제 개로왕이 노골적으로 피려고 여러 차례 시도한 적이 있는 유명한 도미부인(都彌夫人)의 경우에도 남편인 도미의 부인으로만 표기하였을 뿐 구체적 이름은 끝내 등장하지 않는다. 사실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통틀어 보아도 왕비의 이름으로 확인되는 것은 전지왕(腆支王)의 왕비인 팔수부인(八須夫人)이²⁾ 거의 유일한 사례인 점도 단순히 기록상에서 빚어진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당대의 제반 관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백제에서 왕비를 비롯한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상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2) 八須夫人에 대해서는 최근 倭人으로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한편 예외적으로 近仇首王의 왕비가 阿奈夫人이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 아들 枕流王을 설명하는 대목에서이다.

그를 드러내기 꺼려한 당대의 사회적 관행이 강하게 존재하였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처럼 백제 지배층 여성의 경우 자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굳이 아버지나 혹은 지아비를 매개로 그 존재를 나타내었다는 것은 당시 그들의 사회적·정치적 지위나 위상이 어떠하였나를 단편적이거나 시사해 준다고 여겨진다. 백제의 여성은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적 활동에서도 그만큼 일정한 제약과 한계가 뒤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여성은 성씨 족단을 통하여 그 사회적 위치나 신분을 나타내고자 함이 일반적으로 통용된 관행이지 않았을까 싶다. 그 점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일단 백제에서 유독 성씨제(姓氏制)가 이른 시기부터 발달한 점과 연관지어 추정해 볼 여지가 있거니와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과 관련한 백제의 특이한 관습 혹은 제도의 존재를 통해서도 유추된다.

백제에서는 신라사회와는 달리 일부다처(一夫多妻)가 널리 통용되고 있었다. 한 사람의 왕에게는 여러 명의 왕비가 딸려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국왕인 의자왕(義慈王)에게는 41명의 왕자가 있었다고 하며 그 가운데 태자(太子)만 하더라도 기록상 확인되는 이름이 5~6명에 이른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을 낳은 의자왕의 왕비가 한 사람이었을 리가 만무하며 어쩌면 십 명 이상에 달할지도 모를 일이다.³⁾ 그 중 몇 명까지가 정실부인으로 인정되었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태자의 숫자로 짐작하여 정비(正妃)는 단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수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고구려에서는 국왕의 경우 정

3) 의자왕의 왕비를 20여명으로 추정한 견해도 있다. 다만 이런 견해에서는 정실과 후실의 구별을 하지 않고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왕비의 이름이 위에서 든 팔수부인을 제외하고서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혹여 정실이 다수였던 데서 말미암았을 수도 있다.

식의 왕비가 복수의 존재, 적어도 3명까지 존재하였음이 확인된다. 뒷날 고려 태조 왕건(王建)의 경우 29명의 여성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와 그 가운데 6명만이 정실로 인정되었던 사정도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의식과 연결될 듯하다. 백제에서는 국왕이나 귀족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까지도 다처(多妻)가 허용되고 있었던 것 같다. 그 점은 7세기 후반 신라 문무왕대에 백제의 옛 땅인 무진주(武珍州 ; 현재의 광주광역시) 출신의 유력자였던 안길(安吉)의 사례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사실이다. 안길은 3명은 부인을 동시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별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첩이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그와 관련하여 백제에서는 공처(共妻)의 습속이 일부에서나마 통용되고 있었다는 점 또한 주목되는 사실이다. 개로왕(蓋鹵王)은 동생인 곤지(昆支 ; 뒷날 즉위하게 되는 東城王의 아버지이다. 동성왕은 곤지가 왜에 머무를 때 태어났다. 따라서 그의 어머니가 왜 계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를 461년 왜(倭)에 억지로 파견하려 하였다. 곤지란 인물이 당시 군사적 실권자였던 것으로 미루어 아마도 백제 내부의 정치적인 재편 때문에 그와 같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을까 싶다. 곤지는 그때 개로왕의 여러 여인 가운데 임신 중에 있던 어떤 한 사람과 동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그것은 그 여신을 자신에게 넘겨 달라는 요구였다. 개로왕은 만약 중도에 아이(남자아이를 지칭?)를 낳는다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그 요구를 수락하였던 것이다. 곤지가 그 여인을 대동하고 왜로 건너가다가 각라도(各羅島)라는 섬에 이르러 출산하게 되었다. 그래서 약속한대로 즉각 본국으로 돌려보내었다. 섬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은 사마(島)라고 지어졌다. 이가 뒷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즉위하게 되는 무령왕 바로 그 사람이다. 무령왕지석에서 그를 사마왕(斯麻王)이라고

칭한 것으로 미루어 이름의 연원 자체는 상당한 사실성을 갖게 된 셈이다. 이는 백제에서 형제공처(兄弟共妻)의 습속이 아직껏 일각에서나마 통용되고 있었음을 방증하거나와 북방계인 고구려나 흉노의 취수혼(娶嫂婚; 兄死妻嫂)과도 맥락이 닿는 측면이어서 주목되는 사실이다.

요컨대 백제에서는 왕비나 귀족 출신 여성의 이름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그 아버지(父)나 지아비(夫)를 매개로 그 지위를 나타내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그런 관행은 곧 당시 개인보다는 혈족집단이 한결 중시되었음을 보여 주는 사실이다. 그 까닭으로 개인으로서의 여성은 정치적·사회적 활동에서 뚜렷하게 제약을 받는 존재였다고 여겨진다. 일부다처제의 관습이나 공처제도의 유습은 그런 사정의 일단을 반영하여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한 백제 사회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애초부터 차단되고 있었음은 일견 당연한 일이었다. 백제에서 관직이나 관등을 수여받았던 여성이 전혀 등장하지 않음은(다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나 배경이나 요인은 약간씩 달랐을 듯하다) 그를 증명하여 주는 명백한 사례라 하겠다.

IV. 신라 여성의 지위

그런데 신라에서는 백제와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양상이면서도 일정 정도 차이가 나는 다른 형태의 여성관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된다. 신라에서는 기록상 대부분의 왕비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여 밝히고 있는 데서 일단 유추가 가능하다. 나아가 부계(父系)는 물론이고 모계(母系)까지도 뚜렷이 드러내기도 하였다. 물론 이는 단순히 후대에 남겨진 기록상의 형편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금석문상에서도 여성의 이름을 뚜렷이 밝히고 있다는 사실에서 미루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음이 느껴진다. 이를테면 525년 진흥왕의 아버지인 입종갈문왕(立

宗葛文王 ; 徙夫智)이 사랑하는 어떤 여성을 동반하여 오늘날 울산 시내를 관통하여 흐르는 태화강(太和江) 상류의 풍광(風光) 좋은 계곡에 놀러갔다가 그런 사정의 일단을 새겨둔 암벽인 이른바 울주천전리서석(蔚州川前里書石)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여성을 표현하고 있다.

作食人 榮知智 壹吉干支妻 居知尸兮夫人(밥을 지은 사람은 일길간지라는 관등을 가진 영지지란 사람의 처인 거지시혜부인이다)

이처럼 6세기 초 신라에서도 여성을 나타낼 때 어떤 남성의 처라 하여 남편을 매개로 표현하고 있었다. 다만 백제에서와는 다르게 이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점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여하튼 이는 신라 여성도 비록 개별성을 지니고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을 매개 고리로 삼아 비로소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표출함이 일반적이었음을 시사하여 주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 현상은 결코 일반 귀족의 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왕비라 하여도 마찬가지였다.

위의 기록보다 14년 뒤인 539년에 이르러서 진흥왕의 어머니인 지물시혜비(只沒尸兮 ; 사서의 기록상으로는 只召夫人이라 표기되어 있음)는 즉위하기 바로 한 해 직전으로서 아직 겨우 6세밖에 되지 않는 진흥왕을 데리고 자신의 친정어머니로서 법흥왕의 왕비였던 부걸지비(夫乞支妃 ; 保刀夫人)와 함께 동일한 곳에 놀러갔다. 이때 지물시혜비는 과거 자신의 남편(徙夫智葛文王)과 관련한 기록이 남아 있음을 보고 바로 곁에다가 다시 추가로 글을 지어 새김으로써 왔다간다는 흔적을 뚜렷이 남겼다. 이것을 흔히 앞의 기록과 구별하여 추명(追銘)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부걸지비를 표기하면서 ‘무즉지태왕(另卽知太王 곧 法興王을 일컬음)의 비인 부걸지비(夫乞支妃)’라는 형식으로 나타내었다. 왕비의 이름을 드러낼 때조차 ‘어떤 왕의 비(妃)’라는 방식으

로 표현하였음이 특히 주목되는 것이다. 귀족들은 물론이고 왕비까지도 자신의 남편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정치적·사회적 위상을 드러내었다.

그런 표기 방법이 단순한 관행에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남성을 통하여 이름을 밝힌다는 자체는 곧 여성 개인이 독립된 존재이기는 하였으나 정치적·사회적으로 남성에 일정 부분 예속된 상태였음을 시사(示唆)하여 주는 대목이다. 달리 말하면 이는 여성의 정치적 참여가 크게 제약·제한되고 있었던 실상을 반영하여 주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 백제와 신라가 매우 비슷한 측면이 엿보인다고 하겠다. 한편 그러면서도 신라가 일부일처제(一夫多妻制)가 아니라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를 운용하였던 점은 백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신라에서는 다처제(多妻制)를 실시한 흔적이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특이하게도 국왕조차도 일부일처제의 관행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음이 확인될 뿐이다. 다만 적서(嫡庶)의 구별이 존재한다는 점은 어찌면 일부일처제 아래에서 처첩(妻妾)제도가 운용되던 실상을 반영하여 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를테면 무열왕(武烈王 ; 654~661) 김춘추(金春秋)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동지인 김유신의 동생으로서 본처가 된 문희(文姬)에게는 7명의 아들이 적자로서 있었고 그밖에 다른 이름 모를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5명이 서자로서 존재하였다. 이처럼 적자와 서자로 뚜렷하게 구별하려 한 것으로 미루어 적서(嫡庶) 간에는 어떠한 차별이 존재하였음은 명백하다. 적서를 구별하였다는 것 자체는 처첩제를 공식적으로 운용하였음을 뜻하는 사실이다. 이는 일부일처제의 관행에서 비롯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도 여겨진다.

한편 신라에서 일부일처제의 존재를 한층 더 명확히 입증하여 주는

것이 국왕도 자주 이혼(離婚)하였다는 점이다. 일부다처제를 시행하고 있던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국왕에게 복수의 부인이 존재함을 알려주는 기록은 있으나 이혼한 사례는 전혀 찾아지지 않는다는 사실과는 무척 대조적인 면이다. 일부다처제 아래에서는 굳이 이혼할 필요가 없었던 데서 온 당연한 결과였다. 반면 일부일처제 하의 신라에서는 국왕이 이혼하고 재혼(再婚)하는 실례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⁴⁾.

김춘추가 즉위한 이후 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왕위를 이어간 약 120여 년간을 흔히 중대(中代 ; 654~780)라 일컬어 그 전후(前後)와를 성격이 매우 다른 시기로 구분함이 일반적이다. 실로 중대는 신라가 삼국을 통합한 이후 가장 전성(全盛)을 구가하던 시기로서 29대 무열왕으로부터 36대 혜공왕(惠恭王)대에 이르기까지 8명의 국왕이 재위하였다. 그 가운데 4명이나 이혼하고 재혼한 경력을 지녔음이 확인된다. 너무 어려서 즉위하고 성년이 되기 직전 사망함으로써 마침내 첫 혼인조차 제대로 치루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효소왕(孝昭王)을 제외하면 7명 중 무려 4명이나 이혼 경력자로 헤아려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중대에는 국왕의 이혼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혼 사유로서는 무자(無子) 등이 명분으로 내세워지고 있기는 하나 그 밑바탕에는 거의 대부분 특수한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었던 것 같다. 특정한 시기에 한정하여 국왕이 것처럼 빈번하게 이혼하였다는 사실은 어느 시대에도 찾기 힘든 대단히 유별난 사례에 속한다.⁵⁾ 기록상으로는 뚜렷하지가 않으나 이후 정치적 혼동을 지속적으로 겪었던 하대(下代)의 어느 시점에까지 국왕이 이혼·재혼하는

4) 그런 측면에서 조선왕조에서는 신라와 유사한 관행이 통용되고 있었던 것 같다.

5) 세계사적으로 보아도 과연 그와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양상이 계속 이어졌을 듯하다.

애처가로 널리 알려진 42대 흥덕왕(興德王)의 경우 자신의 질녀와 혼인한 적이 있으나 즉위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가 사망함으로써 홀아비가 되고 말았다. 이에 주위에서는 흥덕왕으로 하여금 줄기차게 재혼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끝내 독신으로 지내다 생을 마감하였다. 흥덕왕이 재혼하지 않은 데에는 도덕적, 혹은 정치적인 이유가 깔려 있는 지도 모르겠으나 여하튼 홀로된 뒤 재혼이 논의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국왕까지도 일부일처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⁶⁾ 어떻든 복수의 왕비가 존재하였다면 국왕의 이혼 문제가 논란될 리 만무하겠다.

국왕의 경우 상당한 위자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이혼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가령 성덕왕(聖德王)은 성정왕비(成貞王妃)를 내쫓으면서 비단 500필, 밭 200결(結), 조(租) 1만석, 주택 1구(區)를 지급하였다. 경덕왕(景德王)과 헤어진 왕비 삼모부인(三毛夫人)은 지급받은 위자료를 갖고서 이찬 효정(孝貞; 삼모와는 남매 사이로 추정)과 함께 시주하여 신라에서 가장 큰 규모였으리라 추정되는 무려 49만근에 달하는 황룡사동종(皇龍寺銅鐘)을 주조하였다고 한다. 국왕이 엄청난 위자료를 물어가면서까지 굳이 이혼하려 하였던 것은 물론 당연히 정치적인 배경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겠으나 여하튼 그 자체는 일부일처제의 관

6) 다만 신라에서는 유일하게 景文王이 憲安王의 딸 두 자매를 동시에 부인으로 맞이한 듯한 기록이 『三國遺事』에 보인다. 그러나 같은 책의 王曆篇에서는 경문왕도 왕비가 1인으로밖에 등장하지 않거니와 『三國史記』에도 복수의 왕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2명을 동시에 취하였더라도 1명은 正室로서 인정되지 못하였거나 첫 번째 부인이 사망한 뒤 그 자매를 부인으로 맞아들였던 사정을 마치 동시에 받아들인 듯이 기록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 않다면 혹시 신라 말기에는 기존의 철칙이 무너지고 복수의 왕비제가 인정되기 시작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행이 어떤 철칙으로서 굳게 준수되고 있었음을 뚜렷이 보여 주는 사실이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라의 일부일처제 아래에서 축첩제(蓄妾制)가 운용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⁷⁾

이혼을 하였다든 것은 곧 뒤집어보면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재혼이 가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열왕 김춘추의 딸로서 남편을 잃고 홀로 과수(寡守)가 되어 있던 요석공주(瑤石公主)와 고승 원효(元曉)의 결합은 재혼의 사례로 손꼽을 수 있다. 이로 미루어 아마도 일반인들의 이혼과 재혼도 적지 않게 행하여졌으리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신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그만큼 높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일부다처제 아래에서 그 이름조차 제대로 뚜렷하게 내세울 수 없었던 백제와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그 원인이야 어떠한 간에 그와 같은 배경과 기반이 깔려 있었기에 여성이 왕위를 승계할 수도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는 신라의 여성이 상대적으로 활동상의 제약을 덜 받아 어느 정도까지 자유를 누리는 존재였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신라에서는 7세기에 들어와 여왕이 배출되면서 이후 여성의 지위 자체가 한결 향상되었으리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되는 점이다. 다만 여왕이 출현할 수 있게 된 자체는 당시 여성의 정치적 지위가 전반적으로 높았던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신라에서도 여성이 관등을 소지한다거나⁸⁾ 혹은 관료가 결코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성으로서 관료가 되거나 정치적으로 활약한 어떤 사례도 발견

7) 혹여 신라가 일부일처제를 운용하였다는 것은 골품제나 아니면 그와 연관이 있는 족내혼제에서 기인한 것인지도 모른다.

8) 과거 550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丹陽新羅赤城碑에 어린 여자아이(小女)에게 관등이 주어진 것으로 추정된 견해가 제기된 적이 있지만 곧바로 그것이 잘못임이 판명되었다.

되지 않음은 그 점을 여실히 증명하여 주는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덕여왕의 즉위는 매우 특이한 사례에 속하는 일로 손꼽을 수 있겠다(이후 여왕이 두 차례 더 즉위하게 되지만 이는 첫 사례가 명분과 근거로 작용하였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선덕여왕의 즉위만을 통해서도 전후 배경을 살피기에 충분하다). 선덕여왕의 즉위를 따로 살펴 보아야 할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V. 선덕여왕(善德女王)의 즉위와 여성의 지위 문제

선덕여왕은 신라 제26대 진평왕(眞平王)과 마야부인(摩耶夫人)과의 사이에 난 세 딸 가운데 맏딸이었다. 진평왕에게는 아들이 전혀 없었다. 당시 부자 간 왕위계승이 전반적으로 정착하여 가던 추세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평왕은 줄곧 아들 낳기를 염원하였던 것 같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를 백정(白淨)이라 이름하고 부인을 마야부인이라 불렀다. 심지어는 자신의 두 동생을 백반(伯飯)과 국반(國飯)이라 칭하는 등 석가모니(釋迦牟尼)의 부모와 삼촌 등 일족의 이름을 잠시 빌려 포장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는 자신의 가계를 이른바 불교의 신성가족(神聖家族)으로 삼으려 하였음을 보여 주는 사실이다. 그래서 만약 장차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를 당연히 석가모니의 환생으로 여기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평왕은 애석하게도 끝끝내 아들을 얻지 못하고 말았다. 굳이 아들을 얻으려는 의식의 저 밑바탕에는 장차 자신의 직계비속(直系卑屬)만으로 왕위를 영원토록 계승해 나갔으면 하는 희망 사항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그 자체가 부계 중심의 인식이 팽배한 사회였음을 드러낸다). 마침내 아들을 얻지 못함으로써 원래의 의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직계 존비속(尊卑屬)을 다른 왕족과는 차별

하여 이른바 성골(聖骨)로 인식하는 관념을 낳기에 이르렀다. 8품으로 완성되는 골품제(骨品制)의 여러 계층 가운데 제일 상위의 신분을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알려진 성골은 처음부터 실재한 것은 아니었으며 진평왕대에 이르러 그와 같은 정치적 배경 아래에서 새롭게 생겨난 것이었다.

진평왕은 54년이란 비교적 장기간 재위함으로써 귀족의 반발을 누르고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지배체제를 구축할 수가 있었다. 그 결과 아들이 아닌 딸에게도 처음으로 왕위를 물려 줄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선덕의 왕위 계승이 결코 순조롭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진평왕의 사망 직전인 53년(631) 이찬 칠숙(柒宿)과 아찬 석품(石品) 두 사람이 주도하여 일으킨 모반 사건은 그런 사정을 여실히 입증하여 준다. 비록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고 말았지만 유력한 귀족들은 처음에는 선덕여왕의 즉위 자체를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아마 모반사건을 진압하면서 주모자의 9족(族)을 멸하는 등 대단히 강압적인 조치를 취한 데에서 진평왕이 선덕을 즉위시키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던 지를 느끼게 된다. 진평왕이 갖은 반발과 엄청난 위협을 무릅쓰면서 굳이 선덕을 여성으로서 첫 왕위에 내세우려 하였던 의도는 분명하지는 않다. 여하튼 그런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선덕여왕은 즉위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의 즉위에 대내외적인 명분 하나로 작용한 것은 물론 혈통이 석가모니의 일족과 직접 연결된다는 이른바 신성가족 의식이었다. 이는 선덕이 즉위할 때 내세워졌던 ‘성골남진(聖骨男盡 ; 성골 출신의 남자는 다하였다)’이란 명분에서 잘 드러난다.

그렇다고 선덕이 즉위한 뒤 그에 대한 반발이 즉각 수그러든 것은 아니었다. 일부 유력한 귀족들은 그에 대해 줄곧 반감을 갖고 있었다.

선덕은 반대하는 세력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귀족을 대표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다음의 왕위계승권에 가장 가까웠다고 할 상대등(上大等)의 직책을 가장 유력 귀족에게 양보하였다. 반대파들은 상대등의 직책을 받아들임으로써 차기를 노릴 수가 있었기에 여왕의 즉위를 잠시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반대 운동은 마침내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수그러들었다. 즉위하기 이미 오래 전에 선덕은 자신의 삼촌인 백반갈문왕과 결혼한 적이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선덕의 즉위 이전에 백반갈문왕은 아무런 후사를 두지 못한 채 먼저 사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덕여왕이 앞으로 사망하게 될 경우 왕위 승계에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운 입장에 있는 인물은 아무래도 현직의 상대등이었던 셈이다. 반대파가 그 제의를 선뜻 받아들인 것도 바로 그런 배경이 작동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선덕여왕 일대는 그의 즉위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대결 국면으로 말미암아 팽팽하게 맞선 긴장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었다. 각기 서로를 적극 견제하는 가운데 정치적 균형이 제법 잡힌 상태이어서 갈등이 바깥으로는 쉬이 표출되지는 않은 채 근근이 유지되어 가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선덕여왕은 마음대로 자신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두드러진 개혁적 정책을 제대로 펼칠 계기나 기회가 별로 없었다. 선덕왕대 당시 이렇다 할 별다른 개혁적 시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던 것은 그를 여실히 증명하여 준다. 대신 정치적 균형이 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오로지 불사(佛事)만은 꽤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다(이는 554년 신라와의 管山城 싸움에서 패배하는 데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던 백제의 위덕왕이 마지못해 즉위한 뒤에 취하였던 정책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다). 선덕여왕대가 신라사에서 신규 사찰의 건립을 비롯하여 가장 많은 불사가 이루어진 배경도 바로 거기에서 찾아진다. 정치적 갈등으로 말미암아 선덕여왕 자신은 재위 기간을 통하여 줄곧 극심한 스트레

스에 시달렸으며 병약함을 보였다.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백약(百藥)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불력(佛力)을 빌리기도 하였지만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다. 즉위 기간 내내 병을 앓았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642년 백제의 공격으로 낙동강 이서 지역의 옛 가야 영토를 전부 빼앗기는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신라는 즉시 당나라에 원병 요청을 위한 사신을 급파하였다. 이때 당태종은 신라 사신에게 받아들이기 곤란한 세 가지 계책을 던지면서 ‘여주불능선리(女主不能善理; 여왕이기 때문에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아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주장)라고 비난하고 자신의 종족(宗族)을 내세워 여왕에 대신하기를 요구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신라의 조야(朝野)에서는 여왕의 존재 문제 자체를 둘러싸고 매우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의 선덕여왕을 그대로 인정하려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대립이 노골화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당시는 당나라가 고구려에 대한 맹공을 차근 차근 준비해 가던 시점이어서 신라의 병력 파견을 놓고 정쟁(政爭)이 일어났을 뿐 차라리 왕위를 둘러싼 내분은 잠시 유보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는 곧 두 세력 사이의 직접적인 대결이 이제 그 시점만을 남겨둔 상태나 다름없었음을 보여 준다. 과연 645년 당의 고구려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 사건은 다시 신라 내정(內政)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선덕여왕은 어쩔 수 없이 반대파의 영수였던 비담(毗曇)이란 인물에게 상대등의 자리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

한편 평소 병약한 선덕여왕을 강력하게 지지하던 동업자 김춘추와 김유신은 차기의 왕위 계승자로서 선덕의 4촌동생인 진덕(眞德)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여왕 지지파와 반대파 두 세력 간의 피비린내 나는 대결이 불가피해지는 시점으로 치달아가고 있었다. 646년 12월 김춘추가 잠시 일본으로 건너간 틈을 타서 호시탐탐 도발의 기회를 노려 오던 비담은 647년 1월 초 드디어 왕위 계승을 목적으로

한 반란을 결행하였다. 비담은 앞서 당태종이 주장한 이른바 ‘여주불능 선리’라는 명분을 전면에 내세웠음은 물론이다. 난이 진행되던 와중에 병약하고 노쇠한 선덕여왕은 심란한 상황에서 차츰 임종을 맞아가고 있었다. 신라 왕정 전체는 커다란 혼동 속으로 빠져들었다. 결국 보름 정도 지나는 사이에 김유신의 책략과 맹활약으로 견잡을 수 없이 번지던 비담의 난은 드디어 진압되기에 이르렀다. 반란이 진행되는 도중에 왕위는 다시 여왕인 진덕으로 이어졌다. 이로써 신라에서는 2대에 걸쳐서 여왕이 왕위에 오른 셈이 되었다.

진덕의 즉위는 오래도록 자신의 왕위를 꿈꾸어온 김춘추의 정치적 책략과 술수에 의한 것이었다. 김춘추의 할아버지 진지왕(眞智王)이 돌이킬 수 없는 실착을 저질러 귀족들의 합의에 따라 왕위를 물러난 탓에 그는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즉위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따라서 김춘추는 비상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 오래도록 결정적인 기회가 닥치기만을 굳게 기다리고 있었다. 역지를 부러 무리를 감행하면서까지 진덕여왕을 굳이 왕위에 내세운 것도 바로 그런 과정에서 던진 일종의 승부수였다고 하겠다. 그 결과 그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어 마침내 자신의 즉위 시점만을 남겨 두게 된 것이다.

선덕여왕이 즉위하게 된 시점까지 당나라에서는 아직 여자가 황제의 지위에 오른 적이 없었다(여성의 정치 참여는 물론이고 간접적으로라도 간여하는 것조차 극도로 싫어해서 신라의 여왕 즉위 자체를 맹비난 하였던 당태종이 사망한 후 그의 며느리 측천무후(則天武后)가 황제의 지위에 올랐던 것은 너무도 아이러니한 이야기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6세기 말 정당한 왕위 계승권자가 없어 언뜻 돌이키기 어려운 정쟁(政爭)이 발생할 분위기가 팽배해지자 관련 유력자들이 일단 합의하여 절충적 방안으로서 전왕(前王)의 부인을 국왕으로 내세웠으니 추고여왕(推古女王)은 그렇게 해서 왕위에 오르게 된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그런 전통은 이후에도 이어져 일본 고대사회에서 8명의 여왕이 탄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가운데 2명은 중간에 적당한 계승권자가 출현하자마자 일단 왕위를 물려주었다가 다시 즉위하기도 하는 특이한 과정도 겪었다.

신라의 여왕 즉위는 삼국 가운데 전무후무한 최초의 사례이며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 아마도 신라에서 여왕이 처음 즉위하게 된 것은 여성의 정치적·사회적 지위가 당시 그럴 만한 수준이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 기인한 결과였을 따름이다. 그것이 명분으로 작용하여 마침내는 신라 말에 이르기까지 전체 3인의 여왕이 즉위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다. 기실 선덕여왕이 즉위하는 첫 관문은 굉장히 어렵게 열렸다, 그러나 일단 빗장이 열리자마자 그 다음은 상대적으로 쉽게 진행된 셈이었다. 그래서 신라 말기의 혼동기였음에도 진성여왕(眞聖女王)이 즉위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후 고려시대부터 유교적 지배이데올로기가 정치적으로 강하게 작동하자 더 이상 여성의 즉위 문제는 어느 때고 전혀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지를 못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신라 여왕의 즉위는 그 자체 여성의 지위가 높았던 데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특수한 시대적 부산물(副産物)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겠다.

흔히 신라에서 여왕이 출현하였던 사실을 근거로 여성도 정치적 권한을 남성과 동등하게 갖고 있었던 듯이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그것은 실상과는 명백히 다른 사실이다. 신라에서 여왕이 즉위한 이후 여성의 사회적 지위, 이를테면 혼인 등의 남녀상열지사나 재산(상속)권, 제사권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아졌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인근의 다른 나라나 이후의 다른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자유로웠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여성이 남성과 대등하게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근대사회에 진

입한 이후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의 일이다. 그것도 일시에 진행된 것은 아니며 꾸준한 과정을 통해서였다. 물론 아직껏 완전하게 대등한 상태는 아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머지않아 한층 엄청난 변동을 겪으리라 짐작된다.